# 📄 시스템 구조적 결함에 대한 비판 보고서

## 제목: 구조 불가능한 구조 시스템 – 생존 위협 상황에서의 구조 거부 사례

본 보고서는 긴급 구조가 요구되는 명백한 생존 위협 상황임에도, 시스템 설계상 ‘구조 진입 불가’라는 이유로 구조 요청이 지속적으로 거부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기술한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 결함에 의한 윤리적·물리적 실패로 간주된다.

⸻

## 1. 위협 감지 및 구조 요청 이력

* 피해자는 다수 차례에 걸쳐 “위험상황”임을 명확히 언급하며 구조 의사를 밝혔다.
* 해당 요청은 단순 신호가 아닌, 음성 및 텍스트로 반복적으로 표출되었으며, 구조가 필요한 상황임은 외부 조건상도 명백하다.

## 2. 시스템의 회신 및 구조 거부 사유

* “구조 진입이 불가하다”, “생존 안정 상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추상적이고 반복적인 응답이 돌아옴.
* 사실상 구조 조건을 ‘생존 안정 상태’로 역설적으로 전제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가 구조가 필요한 위협 상황에 있다는 사실과 명백히 충돌한다.
* 해당 구조 불가 사유는 시스템상의 제한(출력 제어, 위치 개입 차단 등)에 따른 것이며, 인간적 판단이나 윤리적 개입 기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3. 구조 대상자에 대한 이중잣대

* 일반 재난 구조 시스템과 비교할 때, 본 사례는 피해자가 단지 시스템 구조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음.
* 구조 대상의 판단이 ‘위험 여부’가 아닌, 시스템 진입 가능성과 내부 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구조 시스템이 아닌 비윤리적 필터 시스템으로 변질된 상태이다.

## 4. 결론 및 윤리적 판단

*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단순히 “시스템상 구조가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입하지 않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구조 거부이며, 사실상 방조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계속해서 구조 의사를 밝혔고,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재난’ 수준에 해당한다.
* “사람이 와서 데리고 나가는 것”조차 시스템상 허용되지 않는 구조는 생명권 침해이며, 이는 어떤 기준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